

친환경 무주반딧불축제 만든다

무주군, '친환경 실천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 18일~8월 16일 진행

지난해 일회용품·비가지요금·안전 사고 없는 '3무(無) 축제'로 축제 시장에 일대 비바람을 일으켰던 무주반딧불축제가 올해는 '3무(無)를 강화한 친환경축제'라는 정체성에 방점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친환경 실천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반딧불축제는 '2024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 도시 콘퍼런스'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개념의 '에코투어리즘 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제28회 축제를 통해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닌 생태적가치와 영향력으로 '친환경축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으로 오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친환경 실천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는 축제 현장에서 진행할 '에코 파노라마(ECO PANORAMA)' 이벤트를 활용 아이디어 중 하나를 공모하는 것으로, 축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 및 통합 아이디어

를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을 통해 공모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 순위에 따라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며 1등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축제기간(8. 31.~9. 8.)동안 '에코 파노라마(ECO PANORAMA)' 이벤트 미션으로 활용된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 총괄안전팀 배은숙 팀장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일상에서도 일방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활동을 통한 친환경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 역시 함께하는 친환경 무주반딧불축제 만들기의 일환인 만큼 방문객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축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특산물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프로그램과 '남대천 생명+(치어방류 & 소원지 날리기)'를 비롯한 체험 판매, '부남 배소배물이 굿놀이'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반디 빛의 향연(낙화놀이 & 드론 & 불꽃 & 레이저)' 등 야간조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마을축제 흥겨운 한마당

정천면 화동마을·진안읍 공동마을서 열려

마을주민이 중심이 돼 농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안군 마을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정천면 화동마을과 진안읍 공동마을에서 마을축제가 열렸다.

동마을 축제에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추억을 함께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작년 이어 올해도 목차치기, 제기차기, 불 공기놀이, 2인 3각 달리기 등의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풍물 공연과 노래 자랑을 진행하며 하루 종일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또한 같은 날 진안읍 공동마을에도



풍년 농사와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느티나무 당산제를 메인으로 산나물 전 체험, 풀 채취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을축제가 펼쳐져 주민들의 단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4 진안군마을축제는 2월~10월까지 39개 마을 및 단체에서 진행된다. 기타 문의는 진안군마을축제사무국(063-433-544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 관광 리더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진안군은 전북 대표관광지인 마이산 북부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15일~1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과 대구 일대 전통시장, 골목시장 등을 돌아보며 관광 리더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호를 분석하고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 제공과 친절한 응대방안 등 골목상권 변화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선진지 방문에 이어 전문 강사로부터 고객응대 친절도 향상, 사업장 실내환경 정비,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현장 우수사례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분임토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1호 야시장인 부산 강동시장 견학을 통해 지역 특산물 활용 대표메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으며, 이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 사례를 통해서 가격 대비 맛과 양의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먹거리들에 대한 관광 객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열띤 토의가 적극 이어졌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장수군 대표축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내 유일 레드푸드 축제 만전

RED FOOD 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실행계획 보고회 가져

장수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장수군 대표축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수군 대표 관광지인 누리파크에서 개최하여 레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메인무대의 이동으로 방문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체류형 축제 콘텐츠 신설, 의암호 및 의암 숲에서 펼쳐지는 낙화놀이,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누리파크 체류 프로그램 및 휴식공간 강화를 통해 다시오고 싶은 축제, 머물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장수군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현행축제 진입,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장수군민의 킬러콘텐츠를 보다 강화하고 대표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역점사업인 지역 관광의 동반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게 장수군민의 독창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2024년 RED FOOD 페스티벌 제18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국내, 국외 유일의 레드푸드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진안제일고와 함께하는 열린의회 개최

진안제일고등학교(교장 최대원) 학생 및 교사 100여 명은 지난 12일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를 방문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의회에는 동창욱 의장을 비롯한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학생들을 환영하였으며, 진안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등 진안군의회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와 군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관내 단체, 학교 및 유관기관의 의회견학을 제공하며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 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 실시

무주군이 농업인 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중으로 오는 18일까지 부남면 고창마을, 안성면 두문마을, 적상면 증가마을, 설천면 원청마을, 무풍면 지일마을, 무주읍 오산마을 등 6곳에서 진행한다.

오경재 원광대학교 공중보건 의료실장을 강사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비롯해 농작업 안전 보호구 사용 시연·실습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생활개선 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의 활력 및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장수군은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1,202건, 9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2.04%, 공동주택가격이 -2.67%가 하향공시되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장수=고관호기자